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⑮ 고려시대 선법의 선교관



▶ 한줄 요약
고려시대 선법에서는 선과 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특수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대체적으로 선교차별(禪敎差別)의 입장이었지만 일방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융합의 면모도 아울러 보여주었다.

禪主敎從 입장서 전개된 '선교융합'

1. 고려시대의 선교관

한국의 선종사에서 고려시대는 이전 시대에 수입 · 전승된 선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곧 사굴산문(闍崛山門)과 가지산문(迦智山門)을 중심으로 구산문이 고려말기까지 면면히 전승되었는가 하면, 새로운 선수행법으로 간화선(看話禪)이 도입되었으며, 보조 지눌(普照 知訥)로부터 비롯된 선리에 대한 저술 및 진각 혜심(眞覺 慧諶)으로부터 비롯된 순수 조사어록이 출현하였고, 공안선(公案禪)과 문자선(文字禪)의 유행으로 인하여 선리와 수행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전등사서의 수입과 편찬에 근거하여 전등법맥에 대한 의식이 정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려선법의 특수성이 부각되어갔다.

이와 더불어 고려시대 선법에서는 선과 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특수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나말여초에는 선법의 초기 시대에 해당하는 만큼 의도적인 선교차별이 출현하였는데, 그 까닭은 선법이 정착을 모색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고려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은 대체적으로 선교차별(禪敎差別)의 입장이었지만 일방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융합의 면모도 아울러 보여주었다. 고려의 전기 및 중기까지는 선교의 차별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전개되었던 시기에 해당한다.

2. 지눌의 선교관 형성

지눌은 그의 저술에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당대의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에게서 많은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교의 관계에 대한 견해이다. 종밀은 불법의 일대시교(一代時敎)에 대하여 교학에 대한 삼교(三敎)와 선종에 대한 삼종(三宗)으로 대비시켜 설명함으로써 선과 교를 전수전간(全收全揀)하여 그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經)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듯이, 종밀은 선교의 융합 내지 일치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었다. 나아가서 종밀은 다양한 선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두었다. 이것은 소위 달마의 일화에서 보이는 피 · 육 · 골 · 수(皮 · 肉 · 骨 · 髓)의 관념이 선문의 각 종파에 대한 우열을 비교한 장치로 활용되었던 것처럼, 종밀은 다양한 선문의 각각에 대한 우열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마니주(摩尼珠)의 비유를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마니주는 투명하고 둥근 옥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색을 반영하여 그 색이 물들어 보인다. 첫째로 마니주가 무명(無明)을 상징하는 흑색으로 물든 경우에 흑색이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떼어내고 아름답고 투명한 명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망념을 벗어나서 깨치려는 북종(北宗)의 견해이다. 둘째로 흑색이 마니주 자체이므로 본래 투명성은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체의 행위가 그대로 깨침이라는 홍주종(洪州宗)의 견해이다. 셋째로 구슬의 흑색이 허망할 뿐만 아니라 명주 그 자체도 공(空)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체개공을 주장하는 우두종(牛頭宗)의 견해이다. 넷째로 마니주의 흑색은 공이지만 마니주는 불공(不空)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여 마니주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투명성을 잘 알아차리는 것은 영지(靈知)를 강조하는 하택종(荷澤宗)의 견해이다. 따라서 번뇌를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 홍주종이라면, 하택종은 번뇌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공적영지(空寂靈知)를 강조하여 이를테면 투명성이 현재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바로 지눌은 이와 같은 종밀의 견해를 대부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따라서 종밀의 견해에서 보이듯이 지눌의 견해도 또한 여러 선문에 대한 입장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선과 교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선교융합의 면모가 드러나 있다. 그러면서도 지눌의 견해가 전체적으로 선을 중심에 놓아두고 그에 상응하는 차원으로 교를 이해하는 견해가 농후하다는 것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것이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에서 "나 지눌이 교학자를 보건대, 권교(權敎)의 설명에 막혀서 진(眞)과 망(妄)을 별개의 것으로 집착함으로써 스스로 퇴굴심(退屈心)을 일으키고, 혹 입으로 사사무애(事事無碍)를 말하면서도 관행(觀行)을 닦지 않으며, 자심에 오(悟) · 입(入)의 비결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선자들이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경우에는 곧 돈교(頓敎)의 이언(離言)이라는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원만한 깨침과 본래심, 불변과 수연, 성(性)과 상(相), 체(體)와 용(用), 안락과 부귀 등이 제불의 의도와 동일한 줄을 모르고 있으니, 그 교학자들을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지눌은 규봉 종밀에게서 많은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전 선법 본격적으로 전개 시기
사굴·가지산문 중심 구산문 전승
새로운 선수행법 간화선의 도입
선교차별 입장 속 융합적 면모도

물론 이 대목은 교학자와 선학자의 병폐를 싸잡아 평가하는 대목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교학에 대한 지눌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가는 짐작해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심결(修心訣)〉에서는 "만약 자심(自心) 밖에 부처가 있고 자성(自性) 밖에 깨침이 있다고 말하며 굳게 그런 생각을 고집하면서 불도를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설령 진사겁(塵沙劫)이 지나도록 몸을 태우고 팔을 불리며 뼈를 부수어 골수를 캐며 피를 뽑아 사경을 하며 앉아만 있고 눕지 않으며 하루 가운데 묘시에 한 끼만 먹으며 내지 일대장경(一大藏經)을 달달 외우며 갖가지 고행을 닦는다 할지라도,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단지 수고만 더할 뿐이다. 그러나 무릇 이 자심을 알게 되면 항사(恒沙)의 법문과 끝없이 오묘한 뜻을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터득된다"고 말한다. 지눌은 선교의 관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그 융합적이고 보완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극적인 깨침으로 나아가는 경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의 입장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후에 지눌은 선과 교의 회통을 시도하였지만 궁극에는 미완성에 그치고 말았으며, 혜심은 교학의 측면을 지해(知解)로 간주하고 의리를 통해 선을 이해하는 의통선(義通禪)의 입장에 빠지는 것을 배격하였다.

3. 선주교종의 전개

이와 같이 선교에 대한 융합의 면모 내지 차별에 대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던 고려 중기의 시대적인 추이는 이후 후기에 진정 천책(眞靜 天頙, 1206~?)의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에 이르면 선교차별의 모습이 더욱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가령 〈선문보장록〉은 제목에 드러난 것처럼 선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어록에서 발췌한 것으로 주옥과 같은 글들을 모아 집대성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상 · 중 · 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두에 서문이 있고, 선교대변문(禪敎對辨門), 제강귀복문(諸講歸伏門), 군신숭신문(君臣崇信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3문에는 각각 25칙 · 25칙 · 39칙씩 수록되어 있고, 마지막 대목에는 니파삼칙(尼婆三則)이 있어 총 92칙이 수록되어 있고, 전체에 대하여 각각 그 출처가 밝혀져 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발문이 붙어 있다.

여기에서 선교대변문은 선과 교를 상대시켜 그 우열을 논의한 것이고, '제강귀복문'에서는 강학하는 스님이 선승에게 설복된 일화를 모은 것이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만 당시의 선교관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가령 선교대변문에 보이는 "대저 교외별전이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에게 공통된 법칙이다. 곧 교외별전의 법칙은 문자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외라 말하고, 순서의 차례나 수행의 계급을 거치지 않고 불심종(佛心宗)을 깨쳐 곧바로 법인을 수용하기 때문에 별전이라 한다. 교법은 유언(有言)으로부터 무언(無言)에 이르는 것이고, 심법은 무언(無言)으로부터 무언(無言)에 이르는 것이다. 무언으로부터 무언에 이르는 것은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 억지로 선이라 이름한다"는 것은 선과 교를 상대시켜 선의 우월적인 입장을 논의한 것에 해당한다. 곧 선이 교에 상대하여 그 우위에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당시에 이미 선법의 흥기로 말미암아 선주교종(禪主敎從)의 성향이 정착되어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한편 선과 교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고려 말기에도 지속되었는데, 교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원나라를 통해서 수입된 임제종(臨濟宗) 법맥에 근거한 정통성의 의식은 달마 선법의 정전(正傳)이라는 우월의식으로 다져졌는데, 백운 경한 및 태고 보우 등을 통한 선주교종(禪主敎從)의 입장에서 전개된 선교융합적인 전통이 그것이었다.

백운 경한(1299~1374)은 진정한 설법이란 교학 곧 경전에 있는 그대로를 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내용을 터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학 곧 경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곧 백운은 삼보에 대한 교학의 입장에 의거한 설명으로서 교학의 불법에 대하여 설법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 이사구절백비(離四句絶百非)하는 정신으로 분별심을 벗어난 직관의 방식을 강조하였다. 태고 보우(1301~1382)의 선관은 화두를 궁극까지 참구함으로써 깨침을 추구하고 경험하였다. 그는 깨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안목이 밝은 선사에게 참문하여 구경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경우 인가의 강조는 교학적인 언설을 초월하여 선법의 방식에 근거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심법이었다. 보우에게 있어서 경전의 이해는 선과의 대립관계이거나 또는 일여라는 입장이 아니다. 오직 교는 중하근기를 위한 방편이며, 나아가서는 미묘한 심지를 터득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단계였다. 교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편으로 간주하여 사교입선(捨敎入禪)의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그의 태도는 화엄을 비롯한 갖가지 경전에 의거하여 선풍을 진작시켰던 모습으로 구현되었다. 곧 화엄선(華嚴禪)을 조사선(祖師禪)의 입장에서 수용한 것으로 화엄삼매를 일종의 공안이라는 차원에서 원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태고는 교학을 선법의 보조적인 입장으로 간주하여 충분히 그것을 활용하고 또한 접화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할 수가 있었다. 이후 조선시대의 선법에 이르러서도 이와 같은 선주교종(禪主敎從), 종교입선(從敎入禪), 사교입선(捨敎入禪)의 풍조는 여전히 유효하게 전개되어 갔다. 고려시대 선종사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었던 이와 같은 선과 교의 차별적인 관계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다. 특히 선법의 전승시기로 평가할 수 있는 조선시대에는 선교차별의 주장이 선주교종의 융합이라는 모습으로 변용되었을 뿐이지 그대로 존속되었다. 그 까닭은 선법이 토착화되고 발전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교학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학과 대결할 필요가 없었기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고려시대 선법의 선교관에서 선주교종의 입장은 선교차별이면서도 선교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교학에 근거한 선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개되었던 점이 엿보인다. 〈동국대 HK교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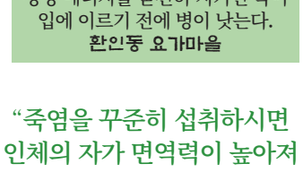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낮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